



파견교환학생 결과보고서

성명		전북대 소속 (학과명)	
해외 파견대학	프랑스 / UTBM	해외파견대학 전공	-
파견기간	<input type="checkbox"/> 1학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1년		
학기 시작일	2025/02/24	학기 종료일	2026/01/16
출국일	2025/02/09	귀국일	2026/01/23

1. 수업 및 교내외 활동

수업	이수과목	1학기	- French 0 - English 2 - International Security and Global Challenges - Comportement culturel et relations humaines au niveau international
		2학기	- Practical English and International Examination - Intercultural consciousness: forging a "global mindset" - The Rest of the English-Speaking World
	수업방식	교수님의 강의를 듣고, 학생들의 토론과 강의 참여가 활발하다.	
	시험방법	과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언어 과목은 보통 말하기 시험과 지필 시험, 사회 과목은 지필 시험과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된다.	
	수강신청 시 유의사항	과목들 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.	
그 외 활동 (해당되는 경우 작성)	동아리		
	문화프로그램	Welcome club에서 각국 교환학생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여행을 가거나 프랑스 식사를 하는 등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.	
	기타		
교내편의시설	도서관, 교내 식당		

2. 귀국 준비

기숙사/숙소 (기숙사참고사항, 퇴실 절차, 납부방법 및 시기)	최소 한 달 전에 기숙사측에 퇴실을 알리고, 퇴실 날짜를 잡아 열쇠 반납과 청소 검사를 받는다. 기숙사비는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.		
각종 해지 사항 (보험, 은행 등)	집 보험, 의료 보험 등은 따로 해지할 필요 없다. CAF와 통신사를 제외하면 자동으로 해지되었다.		
기타참고사항	메일과 학교 메일을 자주 확인하는 게 좋다.		



3. 소감문 (1페이지로 작성, 맑은 고딕, 10포인트, 왼쪽 정렬)

<p>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(캠퍼스, 주변환경 등)</p>	<p>UTBM은 두 캠퍼스가 있다. (벨포르, 세베나) 보통 두 캠퍼스를 오고 가며 수업을 듣는데, 벨포르는 기숙사에서 도보로 10분, 세베나는 버스로 약 30분 소요된다. 벨포르는 소도시라 어느 곳을 가든 버스 이용이 필수이며 시내로 나가면 상점, 마트,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다. 소도시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되는데, 마을 자체가 조용하고 평화로워 여유를 즐기기에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다. 하지만 대부분의 상점이 오후 7시 이후로는 문을 닫으며 기숙사 주변에 편의점 하나 없어 불편함도 있다.</p>
<p>날씨, 숙소, 식사, 비용(물가) 등에 대한 정보</p>	<p>도착 후 한달은 추위가 계속됐지만 봄이 되어서는 날씨가 정말 좋았다. 아침 저녁 일교차는 꽤 있는 편. 기숙사(CROUS) 밥은 3유로대로 평일 점심에 이용 가능하며, 간단히 샌드위치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도 있다. 마트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외식 물가가 정말 비싸기에 거의 식재료를 사서 요리를 해먹었다.</p>
<p>의료, 은행, 교통, 통신 등에 대한 정보</p>	<p>현지 치과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사회보장번호 도움으로 예상보다 무시무시한 가격은 아니었다. 한국에서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왔지만 타국에서 아프면 고생이기에 늘 건강 유의하고, 비상용으로 타이레놀이나 감기약 등을 챙겨오면 좋을 것 같다. 현지 계좌 개통과 교통카드 개설은 Welcome Week 중에 진행하니 참석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통신사는 부이그를 이용했으며, 비싸지 않은 가격에 넉넉한 기가를 이용할 수 있었다.</p>
<p>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, 문화충격 등</p>	<p>사전 준비물로 미니밥솥과 전기장판을 강력 추천한다. 한국처럼 모든 게 빠르지도, 배달음식 종류가 많지도 않아 한국에서의 편리함이 그리울 수 있다. 특히 CAF는 받는 데 긴 시간이 걸렸다. 프랑스 행정 처리가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면 해결될 것이다. 문화는 확실히 자유롭고 개방적이다. 길거리에서 흡연이나 애정행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놀라지 않길 바란다.</p>
<p>파견교 국제교류부 (진행되는 프로그램, 도움받았던 내용 등)</p>	<p>개강 전 2주 정도 진행하는 Welcome Week가 현지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. 또한 국제학생들을 위해 교내 동아리 Welcome club에서 학기 중 근교 여행, 식사, 액티비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. 모든 행사 정보는 왓츠앱으로 확인 가능하며 현지 문화를 즐기고 친구를 사귀기 좋다.</p>
<p>파견교환학생 관련 건의사항 또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</p>	<p>앞으로 살아가며 평생 잊지 못할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. 국내에서 해볼 수 없는 경험과 관계를 쌓았고 타국에서 홀로 자신을 책임지며 많이 성장했습니다. 물론 타국 생활이 늘 행복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. 공허함, 외로움 등... 하지만 교환학생 온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. 분명 값진 경험이 될테니 고민하고 있다면 꼭 도전해보세요.</p>



파견교환학생 결과보고서

성명		전북대 소속 (학과명)	
해외 파견대학	프랑스 / UTBM	해외파견대학 전공	-
파견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1학기 <input type="checkbox"/> 1년		
학기 시작일	2025/09/08	학기 종료일	2026/01/17
출국일	2025/08/18	귀국일	2026/01/26

1. 수업 및 교내외 활동

수업	이수과목	1학기	
		2학기	CC05 MT3E LE02 LF70
	수업방식	주에 하루는 이론중심의 수업을 하고 하루는 조별 토론 혹은 excise를 함께 푸는 수업을 함	
	시험방법	영어 프랑스어 시험은 쓰기 말하기 시험이 있었고 선형대수학은 매주 미니 테스트를 보고 final exam만 있다.	
	수강신청 시 유의사항	Guide UE를 통해 듣고 싶은 수업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학기시작 전에 파견교 담당자와 함께 과목을 정하는데 시간표를 직접 만들 수 없다.	
그 외 활동 (해당되는 경우 작성)	동아리	welcome club이라는 교환학생들을 위한 동아리	
	문화프로그램		
	기타		
교내편의시설	도서관, 학생식당, 자판기,		

2. 귀국 준비

기숙사/숙소 (기숙사참고사항, 퇴실 절차, 납부방법 및 시기)	crous에 들어가서 돈을 충전 할수 있음 그러면 기숙사비 결제일에 자동이체 됨 퇴실은 사이트에서 퇴실 날짜 신청해서 하면됨		
각종 해지 사항 (보험, 은행 등)	caf, 통신요금을 직접 해지해야 함		
기타참고사항	한달을 안채우고 기숙사를 빼면 caf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혹시 학기가 끝나고 여행을 다닌다면 caf를 받은 기숙사비와 중도 퇴실했을 때 기숙사비를 비교해보면 좋을거 같다.		



3. 소감문 (1페이지로 작성, 맑은 고딕, 10포인트, 왼쪽 정렬)

<p>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(캠퍼스, 주변환경 등)</p>	<p>도보 20분에 carrefour라는 마트가 있고 버스 20분거리에 E.Leclerc 라는 대형마트가 있음 버스타고 시내로 나가면 카페 레스토랑 서점 등이 있다 거리는 좀 있지만 Etang des Forges라는 큰 호수가 있어서 산책하거나 런닝 뛰기 좋다. 주말에는 버스 배차 간격이 크고 일요일엔 12:30에 마트들이 문을 닫는다. 시골이라 밤에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진 않지만 시내쪽을 가는건 조심해야 한다.</p>
<p>날씨, 숙소, 식사, 비용(물가) 등에 대한 정보</p>	<p>가을이 넘어갈 때쯤부터 해가 정말 빨리진다. 12월부터 4시반이면 해가 진다 일교차가 큰 편이진 않지만 자주 비가 오고 12월 말이 되면 갑자기 추워져 0도 안팎이 된다. 비가 많이 와서 방수가 잘 되는 신발을 가져오면 좋겠다. 라디에이터가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수면 바지와 1인용 전기장판을 챙겨오는 것을 추천한다. 방에 냉장고가 있고 층마다 공동주방이 있어서 요리해먹기 용이하다. 평일점심은 기숙사 식당에서 2.99유로로 먹을수 있고 외식 물가가 비싸서 직접 요리해먹는걸 추천한다.</p>
<p>의료, 은행, 교통, 통신 등에 대한 정보</p>	<p>의료보험은 한국에서 카카오 보험을 들었고 파견교에 도착하면 Ameli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걸 하면 사회보장번호가 나와서 병원에 가면 좀 더 싸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. 토스카드와 트래블 월렛 카드를 챙겨갔고 welcome week 주간엔 현지 카드를 만들었다. 교통카드도 같은 주간엔 다함께 만들고 한달에 18유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. 통신은 한달동안 말톡을 쓰다가 그후로 부이그로 바꾸어 현지번호를 받았다.</p>
<p>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, 문화충격 등</p>	<p>사전준비는 파견교에서 제시해주는 절차대로 하면 된다. 비자신청이나 서류증 발급등 다양한 정보를 블로그를 통해 얻을 수 있고 현지 생활은 음식만 적응이 되면 크게 불편한게 없다. 문화 차이로는 낯선 사람이라도 눈인사정도 해주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삶에 여유가 있고 일처리도 천천히 하니 여유를 갖고 지내는게 좋을거 같다.</p>
<p>파견교 국제교류부 (진행되는 프로그램, 도움받았던 내용 등)</p>	<p>Welcome club이라는 국제학생들을 위한 동아리가 있다. 2주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친구들과 친해지기 정말 좋다. 2주후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학기동안 가장 자주보는 친구들이라 친해지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같이 밥을 해먹거나 공부를 함께하거나 여행도 함께 갈 수 있다.</p>
<p>파견교환학생 관련 건의사항 또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</p>	<p>UTBM으로 파견이 확정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면 해야할 일정도 정말 많고 내가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. 재학생 준비를 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럴것이고요. 파견을 준비할때가 할 일이 많고 막상 도착하면 해야하는 할 일보다 벨포르에서의 생활을 온전히 즐길 시간이 늘어날것입니다. UTBM은 파리나 리옹보다 즐길 수 있는 인프라는 적지만 현지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매주 파티도 있어서 많은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게 장점입니다. 1학기 혹은 길면 1년이라는 시간동안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생활하며 벨포르에서 많은 추억 쌓으시길 바랍니다.</p>